

2002년 11월 6일

---

## 법률지원단 출범 연설

이 자리에 선배 변호사님도 오셨고 주로 후배 변호사님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후원금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원금보다 더 귀한 것은 정치하는데 이쪽저쪽가담하기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전문지식인그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원단을 만드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저를 지지 해 주신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정치를 하면서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독선 아닌지 대해서 불안과 망설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지지의 뜻을 표시해 주는 것이 제게 자신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오늘 후원금도 받아서 힘이 좀 납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오늘 후원금을 주셨으니까 돈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무슨 돈으로 정치를 하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정치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정치일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돈으로 인한 이런저런 잡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의혹과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그야말로 저비용 정치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선거 때 비용이 안 드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꼭 이번에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특히 조직과 동원의 선거가 아니라, 미디어 선거 그리고 국민들한테 안방에 앉아서 편안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게 상호 토론을 하는 방법을 모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돈 받으면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보통사람의 성금을 받으면 보통사람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과 같은 후원금에 대해서 정말 뜻있는 일이고 저로서는 그 정신을 정말 높이 받들고 우리보통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꼭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작은 돈이라도 투명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돈이라야 정치인을 떳떳하게 만들 수 있고 떳떳한 정치인이라야 원칙대로 정치에 이끌리지 않고 압력에 이끌리지 않고 원칙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선후배 법조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

고 또 후원을 해 주신 것은 정말 세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항상 떳떳한 대통령이 되어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